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5 -
“엄마와 아기의 첫 만남부터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 발표

- 산후조리원은 산모 75% 이상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지만 공공 역할 미약
-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 전액 지방비로 건립 및 운영 중
-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산
-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부터 확대, 출산 및 양육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약속하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을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아기는 우리 모두의 아기” 라며, 산후조리와 돌봄은 모든 산모와 아기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미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적 출산후 돌봄 서비스로 정착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절대 다수가 사설이고 공공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비용 역시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 최고 2,600만원으로 막 출산한 젊은 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로 아기와 산모가 시작부터 경제력에 따른 돌봄 격차를 경험하게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특히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아예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의 몸으로 신생아와 함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산후조리’ 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경기도지사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를 설립해 ‘예약 전쟁’ 까지 빛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13곳에 설립되었지만, 사업운영과 확대에 한계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액 지방비로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좋은 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산모와 아기가 태어난 지역과 경제력에 따라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취약한 지역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붙임] 설명자료

(1) 시도별 산후조리원 현황

('21.6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612	157	29	30	33	9	19	8	1	185	17	13	17	18	10	23	33	10
'17	598	150	29	32	32	9	19	9	2	179	16	13	18	17	10	21	33	9
'18	571	148	28	26	31	8	17	8	6	171	16	12	18	16	11	18	29	8
'19	534	134	29	24	30	8	13	7	6	160	16	12	17	15	11	15	28	9
'20	519	128	26	24	28	7	12	7	6	159	18	12	15	14	12	14	29	8
'21	508	122	27	22	29	6	11	8	7	156	17	11	15	14	12	16	27	8

* 휴업 포함

(2)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최고/최저 금액 10순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

(' 20.12월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234	314	163	209	202	190	219	224	200	231	197	185	222	157	146	183	169	188
'17	241	317	182	202	208	200	239	214	265	239	203	179	233	153	167	188	184	195
'18	252	330	180	219	221	222	240	236	345	251	215	187	234	152	165	186	182	206
'19	263	352	187	232	238	225	265	261	300	262	219	177	230	160	174	198	198	191
'20	274	375	198	237	249	229	252	270	278	276	217	177	234	165	169	191	209	232

* 2주, 일반실기준(실별 요금차이가 있는 경우 높은 금액, 일반실이 없을 경우 특실로 계산, 휴업제외)

<산후조리원 비용 최고·최저 10개소(일반실&특실)>

(' 20.12월 기준, 단위: 만원)

상위 10개소*				하위 10개소*		
번호	지역	산후조리원 명	요금	지역	산후조리원 명	요금
1	서울 강남	A산후조리원	1,300	부산 강서	K산후조리원	90
2	서울 강남	B산후조리원	1,200	충북 청주	L산후조리원	100
3	서울 강남	C산후조리원	980	경기 이천	M산후조리원	100
4	서울 용산	D산후조리원	950	경남 창원	N산후조리원	110
5	서울 강남	E산후조리원	800	부산 북구	O산후조리원	110
6	서울 서초	F산후조리원	700	전북 전주	P산후조리원	110
7	서울 강남	G산후조리원	690	충북 청주	Q산후조리원	115
8	서울 강서	H산후조리원	680	충북 청주	R산후조리원	116
9	서울 강남	I산후조리원	680	경남 창원	S산후조리원	118
10	서울 강남	J산후조리원	650	경남 창원	T산후조리원	120

특실 상위 10개소*				특실 하위 10개소*		
번호	지역	산후조리원 명	요금	지역	산후조리원 명	요금
1	서울 강남	AA산후조리원	2,600	부산 강서	KK산후조리원	95
2	서울 강남	BB산후조리원	2,300	경기 이천	LL산후조리원	110
3	서울 강남	CC산후조리원	2,000	전북 전주	MM산후조리원	140
4	서울 종로	DD산후조리원	2,000	충북 청주	NN산후조리원	140
5	서울 강남	EE산후조리원	1,800	전북 군산	OO산후조리원	150
6	서울 강남	FF산후조리원	1,500	경남 창원	PP산후조리원	150
7	서울 강남	GG산후조리원	1,500	부산 북구	QQ산후조리원	150
8	서울 용산	HH산후조리원	1,500	전남 강진	RR산후조리원	154
9	부산 해운대	II산후조리원	1,500	경북 안동	SS산후조리원	156
10	서울 강남	JJ산후조리원	1,300	경남 창원	TT산후조리원	158

* 일반실 2주 요금 기준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13곳)

- 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 울산 북구

* 울산북구 최근 개설, 홍성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 현재 휴업중

* 포천- 2022년 개원 예정(경기도 2호)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20.12월 기준) >

(단위: 명, 만원)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 형태	일평균 영유아 수	이용 요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12.9월	직영	13	350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30% 감면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5월	위탁 (경기도의료원)	10	168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감면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월	직영 (강원도 삼척의료원)	6	180	삼척시 거주 산모 : 이용료 100% 지원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1월	위탁 (철원병원)	-	179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감면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7월	위탁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4	180	.1년이상 거주 100% 감면 .1년미만 거주 50% 감면 .인근시군(인제,화천) : 30% 감면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13.4월	직영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휴업**	180	취약계층 산모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81만원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일평균 영유아 수	이용요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전남 해남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5.9월	위탁 (해남병원)	6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18.5월	위탁 (강진의료원)	3.7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19.6월	위탁 (완도 대성병원)	3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12월	위탁 (빛가람종합병원)	8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1월	위탁 (울진군의료원)	3.5	182	별도 기준 해당자 : 50% 울진군민 : 30% 경북도민 : 1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월	위탁 (서귀포의료원)	6.5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 감면

* 이용요금은 2주, 일반실 기준

**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은 '13.6월 이용 인원 저조로 휴업 후, '14.5월 운영 재개했으나 '16.11월 호흡기세포용합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다시 휴업함. 리모델링하여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2년 개원 예정임

***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4)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산 추정

○ 최근 건립 &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당 건립비용 = **41억원**

* 리모델링 개원 예정(홍성의료원)은 제외, 순수 신축 산후조리원

* 단 양구 <분만취약지>, <인구소멸지역>, 철원 <접경지역 발전> 명목으로 국비(특교) 반영됨.

장소	완공시기	금액(천원)
강원 철원	2020	5,053,000
강원 양구	2020	2,339,983
경기 포천	2022.1 예정	5,400,000
경북 김천	2022.4 예정	5,559,000
전남 나주	2020	2,200,000
계		20,551,983
시설당 평균 건립비		4,110,397

○ 분만 및 산후조리 취약지 중 수요가 있는 지역 10군데 가정

→건립비 41억원 × 10곳 × 국비지원 50% = **205억원**

□ Q&A 작성자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Q&A

Q1.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가요?

☞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지자체별 운영이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설 산후조리원에 비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설 조리원과 달리 계층의 특성(소득,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별도의 지원도 있습니다. 즉 서비스는 균등하게 제공하지만, 부담은 능력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중입니다.

한편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 2019년까지 주요 도시(원주,춘천,강릉 등) 외 대다수 지역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어 산모들이 ‘원정산후조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삼척,철원,양구 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요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큼니다. 이렇듯 <산후조리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출산 후 온전한 회복과 산후조리가 가능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Q2. 기존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 일단 ‘無산후조리원’ 지역부터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촉진해 상호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Q3. 산후조리원까지 정부가 진출하는 건 재정낭비 아닌가요?

☞ 이미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많은 지자체들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 전액 지방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공공예산이라면, 지역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등 다른 시설과 달리 이용자의 자기부담 비율이 상당합니다.
즉, 여타 출산, 보육, 육아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와 비교할 때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